

9월 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9월 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 증시, 고용불안에 소폭 밀려..다우 0.3%↓	뉴욕증시가 2일(현지시간) 방향없이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음. 기대치에 미흡한 고용지표가 영향을 미쳤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29.93포인트(0.32%) 하락한 9,280.67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2포인트(0.09%) 소폭 떨어진 1,967.07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3.28포인트(0.33%) 밀린 994.76을 각각 기록했다. 하루전과 같은 매물공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자 세력도 없었기 때문에 뉴욕증시는 장중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지 않으며 소폭 등락을 거듭했음. 특히 경지지표 마저 엇갈리게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이 방향을 잡지 못했음. 8월 고용지표 발표를 이틀 앞두고 관심을 모았던 8월 민간부문 고용보고서는 기대치에 미흡했고, 7월 공장주문도 예상치를 밑돌며 부담을 주었음. 이에 비해 미국의 2분기 생산성은 6년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미 연준도 이전보다 긍정적인 내용이 담긴 8월 FOMC 의사록을 공개했음.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블루칩 종목중에서는 상승종목이 6개에 그친 반면 하락종목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음.
美 8월 민간 고용감소 '예상보다 많아'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ADP)가 발표한 민간부문 고용감소 규모가 29만 8,000명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나타냈음. 이같은 수치는 50만명을 넘었던 연초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수준이지만 25만명을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많았음. 이에 따라 이틀 뒤 예정된 8월 비농업부문의 고용감소가 당초 예상보다 많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지금까지 블룸버그통신과 마켓워치는 8월 비농업부문 고용 감소를 각각 23만명과 25만명씩 예고해온 상태임.
美 공장주문 4개월째 증가..기대에는 미흡	미 상무부가 발표한 7월 공장주문은 전월비 1.5%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하지 않았음. 이같은 증가세가 변동성이 높은 운송장비 주문에 크게 의존한데다, 당초 2.2%를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치에도 크게 못 미쳤기 때문임. 전체 공장주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내구재 주문은 4.1% 증가했음. 이는 2년래 최대폭이었고 전월 증가폭인 4.1%(수정치)도 상회했음.

제목	주요 내용
美 2분기 생산성 6.6% ↑..6년래 최대폭	미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의 2분기 비농업부문 생산성이 연율로 6.6% 증가했음. 이는 지난달에 발표한 예비치 6.4%보다 높아진 수치이며, 2003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반면 2분기 단위노동비용은 연율로 5.9% 감소했으며, 이같은 하락폭은 최근 9년래 가장 큰 것임. 노동비용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증가하면 기업에게는 이윤증대 효과를 가져오고, 물가안정도 도모할 수 있음. 마이클 모간 다이와증권 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는 "생산성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며 이는 기업들의 이익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음.
美 지난주 모기지 신청, 3주만에 감소	미 모기지은행협회(MBA)는 지난 주(28 마감기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전주대비 2.2% 감소했다고 밝혔음. 전체 모기지 신청중 주택구입을 위한 신청은 전주대비 1% 줄었고, 대출조건을 바꾸기 위한 차환(리파이낸싱) 신청은 3.1% 감소했음. 이중 차환신청은 1월 고점 대비 70% 가량 줄었음.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주택소유자들의 차환신청을 꺼리게 만들었다는 분석임.
국제유가, 방향없이 등락후 보합 마감	국제유가가 등락을 거듭한 끝에 보합세로 거래를 마쳤음. 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날 종가와 동일한 68.05달러로 거래를 마쳤음. 유가는 장중 68.80달러와 67.05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지 않았음. 국제유가는 장중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주간 원유재가 감소폭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반등이 좌절됐음.
한국 신용등급 상향 `청신호` 될까	세계 3대 신용평가사중 하나인 영국의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으로 원상 복귀시켰음. 전대미문의 위기 직후 대외의존도가 높아 각종 위기설에 휩싸였던 한국이 위기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임.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위기 대처능력을 비롯해 최대 취약점으로 꼽혔던 외환시장의 정상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중 가장 빠른 회복 속도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다. 북한 리스크가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음.
美 연준 위원들, 경제 인식 개선	미 연준 위원들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모기지 관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축소 여부를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미 연준 위원들의 신뢰가 이전보다 더욱 상승했음을 반증해주고 있음.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8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공개했음.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2명의 연방은행 총재들은 연준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관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